

염안료 수출 “탄탄대로”

동남아 수요 확대로 … 총 1.7억달러 8.5% 증가

염안료 및 중간체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염·안료 및 중간체 수출은 총 1억7500만달러로 92년 같은 기간보다 8.5%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염료수출은 8665만달러로 92년동기대비 240만달러 가량 늘어났으며 안료와 중간체도 각각 850만달러, 400만달러 증가했다.

염료는 태흥산업, 이화산업, 럭키 등이 1200만~1800만달러에 이르는 높은 실적으로 수출을 주도했으며 이밖에 경인양행, 경인합성, 진웅산업 등도 호조를 보였다.

안료도 대한스위스화학을 비롯한 단석산업, 한일화학 등 주요기업들의 수출확대노력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중간체도 한국협화와 삼보정밀 등이 1000만달러를 웃도는 수출실적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염료의 경우 지난해 최대수출시장이던 EC를 제치고 올들어 1위로 부상한 홍콩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등에 대한 수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92년에 수출이 전무했던 브라질에 대한 수출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또 안료 및 중간체의 경우도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염료수출이 비교적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다 중국, 인디아 등이 주요 수출시장에서 저가품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어 수출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3/10/4 · 11>